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이 집단 실체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이중매개 효과*

하 창 현

박 상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경우에 밝은 피부색을 가진 경우보다 그 집단의 실체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며,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과 집단 실체성 사이의 관계는 집단 구성원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절차, 측정 도구, 분석 방법 등은 사전 등록을 하였다. 또한 표본 크기, 데이터 분석 제외 기준, 모든 조작 및 측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보고하였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또는 밝은 피부색 조건 중 한 조건에 할당되어 대상들(한 집단의 구성원)의 사진을 제시받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 성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처음 평가하였던 대상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진과 그 집단에 대한 설명을 읽고 집단 실체성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피부색 조건과 집단 실체성 간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순차적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차적 매개 효과는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공동 운명, 공동의 목표, 친밀성, 비침습성, 집단성)들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으로 살펴본 참가자 개인의 수준에서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집단 실체성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이 대상들의 피부색을 하얗게 생각할수록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고 그들의 집단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하며, 높게 지각된 집단주의 성향은 최종적으로 그들이 속한 집단에 대해 공동의 목표, 친밀성 그리고 집단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피부색,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주의-개인주의, 집단 실체성

* 이 논문(도서, 작품)은 2022년도 충북대학교 교원 국외 파견 프로그램에 따라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박상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중대로 1, E-mail: sangheepark@chungbuk.ac.kr



© 2022,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람들은 목소리(Peng, Zebrowitz, & Lee, 1993; Pisanski & Rendall, 2011), 피부색(Maddox, 2004), 체격(Ryckman, Robbins, Kaczor, & Gold, 1989), 거주지(Darley & Gross, 1983) 등의 다양한 정보들에 영향을 받아서 타인의 인상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구분하는 다양한 변인 중 하나인 피부색에 관심을 가지고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에 따라서 집단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피부색에 따라 집단 실체성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집단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에 의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부색은 인종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단서일 뿐 아니라, 같은 인종 내에서도 사람들은 타인의 피부색에 따라 인상을 다르게 형성한다. 같은 인종 내에서의 피부색에 따른 인상 형성의 차이를 살펴본 Maddox와 Gray(2002)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대상의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에 밝은 경우보다 전반적인 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를 가진 흑인들을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진 흑인들을 가난하고 위협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백인 대상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 인종 내에서 피부색에 따라 나타나는 편향을 ‘피부색 편향(skin tone bias; Dixon & Maddox, 2005)’이라고 한다. 피부색 편향은 실제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Goldsmith, Hamilton 그리고 Darity(2006)의 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의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의 흑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백인들에게서도 이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의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의 흑인들보다 더 많은 차별을 겪는다고 한다(Klonoff & Landrine, 2000).

피부색에 따른 인상의 차이는 흑인과 백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하창현(2019)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두운 피부를 가진 한국인들을 밝은 피부를 가진 한국인들보다 위협성과 건강함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유능성과 깨끗함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더 낮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한국인들은 중간 피부색을 가진 한국인들보다 따뜻함, 도덕성, 깨끗함, 사회적 지위가 더 낮다고 평가받았고 위협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았다. 이러한 피부색에 따른 한국인들의 인상의 차이는 가상의 채용 장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남성들이 밝은 피부색을 가진 남성들보다 블루칼라 직업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피부색에 따른 편향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부색 연구들(하창현, 2019; Dixon & Maddox, 2005; Goldsmith et al., 2006)은 피부색이 개인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으며 집단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피부색 연구들은 서양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흑인과 백인들의 피부색 밝기에 따라 발생하는 편향이나 차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Klonoff & Landrine, 2000; Maddox & Gray, 2002). 반면, 동양에서는 피부색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적고 동일한 인종의 피부색 밝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편향을 살펴본 연구 또한 적다. 따라서 흑인 또는 백인들의 피부색 밝기에 따라 발생하는 편향들이 동양 사회에서도 발생하는지(하창현, 2019)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집단 맥락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피부색에 따른 개인 인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피부색이 집단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피부색이 어두운(vs. 밝은) 경우에 집단 실체성을 높게(vs. 낮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실체성 지각의 차이가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진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vs. 높게) 지각하고 이들의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하는 것에 의해 순차적으로 설 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집단 실체성

집단 실체성(group entitativity)은 집단이 독립적인 개인들의 세트(set)가 아닌 통일성(unity), 일관성(coherence), 내적 조직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 여겨지는 정도를 뜻한다(Campbell, 1958). 이항수와 박상희(2017)에 따르면, 집단 실체성은 다섯 개의 하위 요인인 '공동 운명(common fate)', '공동의 목표(common goal)', '친밀성(closeness)', '비침습성(impermeability)', '집단성(groupness)'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운명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의 목표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목표를 의미한다. 친밀성은 응집성과 관련되어 집단 구성원들에게 느껴지는 집단에 대한 애정이나 결속력 등을 뜻하며, 비침습성은 집단 구성원이 집단에서 나가는 것이 힘들고 집단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집단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 집단성은 집단이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는 성질을 말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거나 구성원들 간에 서로 비슷하거나 서로 가까이 에 위치한 집단은 단순한 집합체로 여겨지기도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높은 실체성을 가진 집단은 낮은 실체성을 가진 집단에 비해 집단의 의지나 집단의 특성을 더 가지고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할 것이라고 지각되기도 한다(Castano, Sacchi, & Gries, 2003; Lakens & Stel, 2011). 실제로 실체성이 높은 집단은 여러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처럼 지각되며, 개인에 대한 뇌 활동 반응과 높은 실체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뇌 활동 반응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Plitt, Savjani, & Eagleman, 2015).

집단 실체성은 사람들이 그 집단을 다르게 지각하도록 이끌며, 집단의 정보처리에도 영향

을 미친다(김범준, 송관재, 이훈구, 1997). 사람들은 높은 실체성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낮은 실체성을 가진 집단보다 그 집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McConnell et al., 1994, 1997). 높은 실체성 집단은 낮은 실체성 집단보다 긍정/부정과 상관없이 더 극단적으로 평가되며(Thakkar, 2001), 더 위협적으로 지각된다(Callahan & Ledgerwood, 2016). 또한 높은 실체성 집단은 낮은 실체성 집단보다 잘못을 행한 경우에 집단적 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받기도 한다(Denson, Lickel, Curtis, Stenstrom, & Ames, 2006; Lickel, Schmader, & Hamilton, 2003). 집단 실체성과 처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Newheiser, Sawaoka, & Dovidio, 2012), 집단 실체성이 높은 집단은 집단 실체성이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이유는 실체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가 더 크다고 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집단의 실체성을 높거나 낮게 생각함에 따라 그 집단의 행동을 다르게 지각하여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할 수도 있기에, 집단 간 관계에서 집단 실체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회사나 직업, 스포츠 팀, 정당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며(Callahan & Ledgerwood, 2016; Lickel et al., 2000; Newheiser et al., 2012),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에 따른 실체성 지각의 차이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목소리(Peng et al., 1993)나 체격(Ryckman et al., 1989) 등의 외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집단 실체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집단 구성원들의 외적 특성이 집단 실체성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는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구성원들의 외적 특성 중에서 집단을 구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부색에 관심을 두고서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에 따라 그 집단의 실체성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피부색과 사회경제적 지위

피부색은 타인에 대한 지각 및 인상 형성에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피부색에 따라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선행 연구(Maddox & Gray, 2002)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를 가진 흑인/백인을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백인보다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밝은 피부색을 가진 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백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 지각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들이 다른 흑인들보다 신분 상승의 기회를 더 가질 것이라 여기며,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를 가진 흑인과 높은 지위를 연합하는 경향이 있었다(Bayton & Muldrow, 1968; Franklin, 1959; Ransford, 1970).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인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피부색에 대한 연구(하창현, 2019)에서 참가자들은 세 가지(어두운, 중간, 밝은)의 피부색 사진을 제시받았고 다양한 인상 특질들에 답하였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한국인들은 밝은 피부색을 가진 한국인들보다 덜 유능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피부색 재인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트칼라 직업의 한국인을 실제 피부색보다 더 밝은 피부색으로 오재인하였으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칼라 직업의 한국인들을 실제보다 더 어두운 피부색으로 재인하였다. 즉, 사람들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대상들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밝은 피부색을 가진 대상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창현(2019)의 연구 외에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부색에 따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

인의 피부색에 대한 기존 연구(하창현, 2019)와 달리, 집단 구성원에 대한 지각이 집단 전체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member-to-group generalization; Brown & Hewstone, 2005; Pettigrew, 1998)을 구성원들의 피부색을 중점으로 하여 살펴본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부색과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게(vs. 높게) 지각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가설 1.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할 것이다.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진 대상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더 낮게(vs. 높게) 지각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집단 실체성

사람들은 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대상의 인상을 다르게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대상의 유능성을 낮게 지각한다(Cuddy, Fiske, & Glick, 2008; Fiske, Cuddy Glick, & Xu, 2002). 집단 속의 개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개인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의 개인들보다 더 높은 주체성을 가진 것으로 지각되기도 한다(Oldmeadow & Fiske, 2007).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도 관련될 수 있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관계에 대하여, Hofstede(1991)는 가난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도시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일 필요가 없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Kraus, Piff, & Keltner,

2009; Snibbe & Markus, 2005). 실제로 낮은 지위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에 집단주의적 성향을 우선시하고 대인 간의 연대, 집단적 지지, 그리고 공동체 감정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Lorenzi-Gioldi & Dafflon, 1998), 상호의존적 자기를 강조하는 반면,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은 독립적 자기를 강조한다(Grossmann & Varnum, 2011). Piff, Kraus, Côté, Cheng, 그리고 Keltner(2010)는 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또는 높게 지각하도록 조작한 뒤, 다른 대상들과의 협력이나 기부 등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게 조작된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 조작된 참가자들보다 타인과 덜 협력하고 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Ahuja, van der Schaar, & Zame, 2017)에서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num(2013)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사회 계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암묵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사회 계층과 개인주의 성향 간의 상관($r = .23$)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을 가진 대상들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을 가진 대상들보다 개인주의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대상들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들의 성향을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지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vs. 높게) 지각되는 경우에 그 대상의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 2. 대상에 대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다르게 지각하도록 이끌 것이다.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vs. 높게) 지각되는 경우, 그들의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은 더 높은 것으로 지각될 것이다.

한편, 집단주의 성향은 집단 실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주의-집단주의(Triandis, 1995) 지각의 차이는 집단을 일관성이 있고 의미있는 단위로 지각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집단 실체성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단의 특성들이 집단주의의 특징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Lickel, Hamilton, Wiczorkowska, Sherman, & Uhles, 2000; Hamilton, Sherman, & Lickel, 1998). 특히,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이 높은 것이 집단주의의 특징으로 정의되는데(Lickel et al., 2000; Markus & Kitayama, 1991), 상호의존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공통 목표, 공통 결과,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높게 지각되는 것은 집단 실체성 또한 높게 지각되도록 만든다(Gaertner & Schopler, 1998). Lickel 등(2000)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실체성이 높은 집단들(예: 친밀한 집단, 과업 집단)을 상대적으로 실체성이 낮은 집단(예: 약한 사회적 관계, 일시적인 집단)들보다 공통 목표, 공통 결과,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각 변인들과 집단 실체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 집단 실체성과 공통 목표($r = .45$), 공통 결과($r = .40$), 상호작용($r = .58$)과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질 것으로 지각되는 대상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해 집단 실체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 3. 대상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그들이 속한 집단의 실체성을 다르게 지각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지각되는 경우, 그들이 속한 집단의 실체성을 더 높게(vs. 낮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4. 피부색과 집단 실체성 간의 관계를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vs. 높게) 지각하고, 더 낮게(vs. 높게)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집단주

의(vs. 개인주의) 성향을 더 높게 지각하여 최종적으로 집단 실제성을 높게(vs. 낮게) 지각하도록 이끌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극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극 성별을 탐색적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자극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았다.

방 법

본 연구는 the Open Science Framework에 연구의 가설, 절차, 측정 도구, 표본 수 산출 및 분석 방법을 사전 등록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모두 기술하였다(osf.io/n2wds).

참가자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참가자 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심리학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Richard, Bond, & Stokes-Zoota, 2003)에 해당하는 Cohen's $d = 0.36$ 과 80% 이상의 검정력을 갖기 위해 가설 1-3에서 요구되는 참가자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246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 4에 해당하는 이중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참가자 수를 계산하였다. Sim, Kim과 Suh(2021)의 이중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참가자 수 권고에 따르면, 중간 효과크기(Cohen, 1988)를 사용하여 부분 매개 효과의 검증을 위한 참가자 수를 22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주의점검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00명(남성 15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국내의 리서치 회사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자료 분석에 동의하지 않은 참가자와 주의점검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없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40.86세($SD = 10.16$)였다.

절차

연구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가설이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과 집단 구성원에 대한 지각 및 판단'이라는 제목과 함께 연구 설명서 및 참가 동의서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사람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답한 뒤, 네 조건(집단 구성원의 피부색: 어두운 vs. 밝은 × 자극 성별: 남성 vs. 여성) 중에서 한 조건에 할당되어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첫 번째 과제에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인상과 관련된 질문에, 두 번째 과제에서는 첫 번째 과제에 나왔던 인물들로 구성된 집단과 관련된 질문에 답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또는 밝은 피부색 조건에 해당하는 집단 구성원 세 명의 개별 사진을 제시받고, 각 구성원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질문들에 답하였다. 각 구성원에 대한 응답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처음 제시받았던 세 명의 인물들로 구성된 집단의 사진을 제시받았다. 참가자들은 집단의 사진과 함께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집단에 대한 짧은 소개를 제시받고 집단 실제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답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조작점검 문항과 주의점검 문항에 답을 하였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연구의 목적 및 가설에 대한 사후 설명서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연구는 종료되었다. 연구의 모든 절차 및 사용된 측정 도구들은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실험 조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진 자극들은 온라인 사이트(<https://webmorph.org/>)의 WebMorph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총 6장(남성 3, 여성 3)의 사진을 제작하기 위하여 KOFEE(Park et al,

2011)와 MR2(Strohmingler et al., 2016)로부터 24명의 얼굴 사진을 추출하였으며, 자극 사진 1장당 4명의 얼굴을 합성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얼굴과 피부색을 제외한 다른 특성들(머리카락, 의상 등)에 의해 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제거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여섯 장의 사진들은 다시 두 가지(어두운, 밝은) 피부색 버전으로 편집되었다.

피부색 조작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GIMP(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 Version 2.10.28)를 사용하였으며, 색보정 도구(burn/dodge tool)를 이용하여 그림 1와 같이 피부색을 검게 또는 하얗게 조작하였다. 사진 자극을 여러 수준의 피부색 밝기로 편집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피부색의 밝기(어두운 피부, 밝은 피부)와 자극 편집이 자연스러운 사진 자극을 연구실 구성원들(심리학 박사 2명, 심리학 박사과정 4명, 심리학 석사과정 3명)과 토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두운 피부색으로 편집한 6장의 사진과 밝은 피부색으로 편집한 6장의 사진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매개변인 1)

본 연구에서는 사진 속 대상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Adler et al., 2000)를 사

용하였다.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다리의 최상층은 부유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며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사다리의 최하층은 가난하고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지며 안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아예 직업이 없음을 뜻한다. 참가자들은 척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다리의 이미지를 제시받은 뒤, '사진 속 인물의 사회경제적 지위(돈, 교육, 직업 등)가 제시된 사다리의 어디에 위치할 것 같습니까?'의 물음에 1부터 10까지 표시된 10개 가로대 중 한 곳을 골라 답하였다. 응답한 숫자가 클수록 사진 속 인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게 지각되었음을 뜻한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매개변인 2)

본 연구에서는 Kim과 Cho(2011)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한국어판 척도의 네 개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정체성의 원천(source of identity), 사회적 관계의 방식(mode of social relationship), 규준 수용(norm acceptance), 목표 우선(goal priority) 중에서 목표 우선에 해당하는 네 문항을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너무 많은 문항을 제시하는 것은 응답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목표 우선 요인은 본 연구의 맥락에서 사용한 집단(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문항에서는 자신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성향을 추정



그림 1. 남성 피부색 조작 자극

하기 위하여 질문의 내용을 자신이 아닌 사진 속 인물로 변경하였다. 참가자들은 양극단에 개인주의(‘이 사람은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등)와 집단주의(‘이 사람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등) 성향에 대한 문장을 제시받고 사진 속 인물의 성향에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7점 척도(1 = “<<<”, 2 = “<<”, 3 = “<”, 4 = “-”, 5 = “>”, 6 = “>>”, 7 = “>>>”)로 표시하여 답하였다(각 인물에 대한 Cronbach's $\alpha = .89-.94$). 점수가 클수록 사진 속 인물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질 것 같음을 의미한다.

집단 실체성(종속변인)

집단의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향수와 박상희(2017)가 집단 실체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집단 실체성 척도는 총 19개의 문항으로, 공통 운명 3문항(‘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등, Cronbach's $\alpha = .85$), 공동의 목표 3문항(‘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등, Cronbach's $\alpha = .82$), 친밀성 5문항(‘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등, Cronbach's $\alpha = .86$), 비침습성 3문항(‘이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등, Cronbach's $\alpha = .82$), 집단성 5문항(‘이 집단은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등, Cronbach's $\alpha = .86$)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집단의 사진을 제시받고, 각 문항에 대해 ‘이 집단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얼마나 동의하는지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물음에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로 답하였다.

집단 실체성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이향수, 박상희, 2017)에서 탐색한 요인수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섯 개로 요인수를 고정한 뒤, 사각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주

축 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각 문항이 기존 연구(이향수, 박상희, 2017)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작점검 및 주의점검

사진 속 인물들의 피부색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인물의 사진과 함께 인물의 피부색 밝기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진 속 인물의 피부색이 얼마나 검은 또는 흰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7점 척도(1 = 매우 검은 편이다, 7 = 매우 흰 편이다)로 답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사진들을 집중해서 보지 않은 참가자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의점검 문항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에서 평가했었던 인물 사진 세 장과 새로운 인물 사진 한 장을 제시받고,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선택하였으며 주의점검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없었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 분석

관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는 표 1에, 관심 변인에 대한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밝은 피부색은 0으로, 어두운 피부색은 1로 코딩하였으며, 자극 성별을 여성을 0으로, 남성을 1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탐색적으로 자극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과 자극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집단 실체성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_s > .11$. 따라서, 이후 결과 보고에서는 자극 성별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지 않았다.

표 1. 관심 변인들 간의 상관

변인	1	2	3	4	5	6	평균(표준편차)
1. 피부색	-	.00	-.73*	-.08	.00	-.11	-
2. 자극 성별		-	.12*	.20**	-.03	.00	-
3. 지각된 피부색 밝기(조작점검)			-	.17*	.10	.19**	4.10(1.08)
4.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39**	.07	5.07(1.14)
5.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13*	3.69(0.75)
6. 집단 실체성						-	3.89(0.68)

* $p < .05$, ** $p < .01$.

표 2. 관심 변인들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

	어두운 피부색 조건	밝은 피부색 조건
지각된 피부색 밝기(조작점검)	3.31(0.75)	4.88(0.06)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4.98(1.10)	5.16(1.17)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3.69(0.84)	3.69(0.65)
집단 실체성	3.81(0.62)	3.96(0.73)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에 대한 조작점검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 조작에 따라 참가자들이 사진 속 인물의 피부색이 검거나 희게 지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하였다. 피부색 조작의 효과가 잘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 어두운 피부색과 밝은 피부색 간의 지각된 피부색 밝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98) = 18.45, p < .001, 95\% \text{ CI} = [1.4075, 1.7436], \text{Cohen's } d = 2.13$. 구체적으로, 어두운 피부색 조건의 참가자들은 밝은 피부색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을 더 검게 지각하였다. 이는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피부색 조작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피부색과 집단 실체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피부색과 집단 실체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

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이중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8)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0,000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피부색이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173, SE = 0.132, p = .189, 95\% \text{ CI} [-0.4322, 0.0855]$. 반면,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B = 0.257, SE = 0.035, p < .001, 95\% \text{ CI} [0.1869, 0.3265]$.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집단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이 집단 실체성에 미치는 영향(가설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B = 0.112, SE = 0.056, p = .046, 95\% \text{ CI} [0.0020, 0.2225]$. 연구자들의 예상과 반대로

참가자들은 집단 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고 지각할 경우에 그 집단의 실체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피부색과 집단 실체성 간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가설 4). 분석 결과, 이중매개 효과를 통제한 피부색과 집단 실체성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 = -0.145$, $SE = 0.078$, $p = .063$, 95% CI [-0.2985, 0.0086]. 매개효과 검증결과, '피부색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집단 실체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01$, $SE = 0.010$, 95% CI [-0.0244, 0.0192]. 또한 '피부색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집단 실체성'의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05$, $SE = 0.011$, 95% CI [-0.0108, 0.0343]. 끝으로 '피부색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집단 실체성'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05$, $SE = 0.005$, 95% CI [-0.0181, 0.0026].

추가적으로,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공동 운명, 공동의 목표, 친밀성, 비침습성, 집단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피부색과 집단 실체성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섯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개인의 수준에서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집단 실체성 하위 요인 간의 관계에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순차적 매개 효과

조작된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통해

집단 실체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부색 조건에 따라 지각된 피부색 밝기(조작점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 실체성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설 4에서 이중매개 효과를 통제한 피부색 조건과 집단 실체성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경향성을 보였다.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집단 실체성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여, 개인 수준에서 지각된 피부색 밝기(조작점검)를 피부색 조건 대신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이중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전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지각된 피부색 밝기를 독립변인으로, 집단 실체성을 종속변인으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매개변인 1로,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매개변인 2로 투입하였다. 추가적으로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 간의 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각된 피부색 밝기는 공동 운명, $r = .11$, $p = .059$, 과 비침습성, $r = .20$, $p = .418$,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공동의 목표, $r = .20$, $p = .001$, 친밀성, $r = .19$, $p = .001$, 집단성, $r = .14$, $p = .014$,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지각된 피부색 밝기에 따라 집단 실체성의 하위 요인들에서 차이가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이중매개 모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집단 실체성 그리고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살펴본 결과,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집단 실체성 간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집단 실체성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집단 실체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공동의 목표, 친밀성, 그리고 집단성에서 이중매개 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집단 실체성, 공통 운명, 그리고 비침습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외한 공동의 목표, 친밀성, 그리고 집단성에 대한 이중매개 효과 검증 결과를 보고하였다.

공동의 목표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공동의 목표 간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살펴 보았으며,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부색과 공동의 목표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173$, $SE = 0.051$, $p < .001$, 95% CI [0.0725, 0.2741]. 단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공동의 목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12$, $SE = 0.013$, 95% CI [-0.0423,

0.0082]. 또한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공동의 목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06$, $SE = 0.010$, 95% CI [-0.014, 0.0274]. 끝으로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공동의 목표’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011$, $SE = 0.007$, 95% CI [0.0012, 0.0264].

친밀성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친밀성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해 보았으며,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부색과 친밀성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137$, $SE = 0.048$, $p = .005$, 95% CI [0.0428, 0.2319]. 단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친밀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11$, $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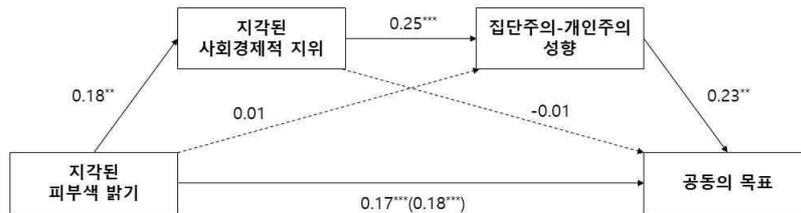


그림 2.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중매개 모형.

주. 괄호 안의 계수는 두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직접 효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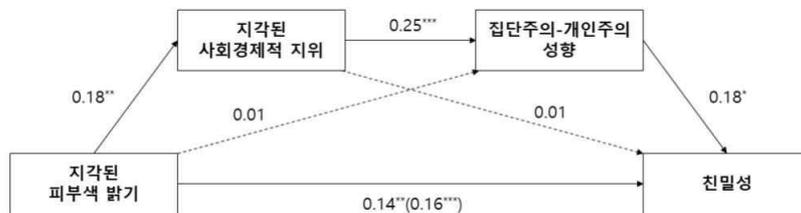


그림 3. 친밀성에 대한 이중매개 모형.

주. 괄호 안의 계수는 두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직접 효과를 나타냄.

0.013, 95% CI [-0.0111, 0.0402].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친밀성'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05$, $SE = 0.008$, 95% CI [-0.0114, 0.0220]. 끝으로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친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008$, $SE = 0.006$, 95% CI [0.0001, 0.0223].

집단성

지각된 피부색 밝기와 집단성 간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피부색과 집단성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097$, $SE = 0.047$, $p = .039$, 95% CI [0.0051, 0.1890]. 단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집단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06$, $SE = 0.011$, 95% CI [-0.0142, 0.0320].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집단성'의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05$, $SE = 0.008$, 95% CI [-0.0115, 0.0232]. 끝으로 '지각된 피부색 밝기 →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 집단성'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008$, $SE = 0.006$, 95% CI [0.0004, 0.021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에 따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다르게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들이 속한 집단의 실체성 지각에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vs. 높게) 지각되고, 그들의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진 집단의 실체성이 높게(vs. 낮게) 지각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보다 낮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대상의 피부색에 따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편향을 가지지 않았다. 둘째,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vs. 낮을수록) 그들의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 것이라고 지각한다는 연구 가설 2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셋째,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실체성이 높게 지각될 것이라는 연구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참가자들은 집단주의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보다 집단 실체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끝으로, 집단 구성원의 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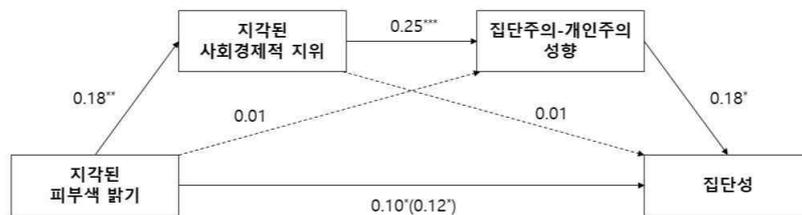


그림 4. 집단성에 대한 이중매개 모형.

주. 괄호 안의 계수는 두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직접 효과를 나타냄.

색과 집단 실체성 간의 관계가 대상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피부색 두 조건과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 실체성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피부색 조작 점검의 결과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 실체성 간의 상관이 존재한 점, 그리고 가설 4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에 따라 집단 실체성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두운 피부색으로 구성된 집단의 실체성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참가자들이 개인 수준으로 지각한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 밝기(조작점검 응답값)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다른 변인들(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집단 실체성, 공동 운명, 공동의 목표, 친밀성, 비침습성, 집단성)은 연구 가설 4에서 가정한 순차적 매개 모형과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자들은 지각된 피부색 밝기에 따라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의 피부색을 검게(vs. 하얗게) 지각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vs.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가자들은 지각된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상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다르게 판단하였는데,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vs. 낮은) 대상들의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집단주의(vs.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고 지각되는 대상으로 구성된 집단은 집단 실체성의 하위 요인인 공동의 목표, 친밀성, 그리고 집단성이 높을(vs. 낮을) 것이라 지각되었다. 최종적으로 개인 수준에서 지각된 집단 구성원들의 피부색이 흰수록(vs. 검을수록) 공동의 목표, 친밀성, 집단성을 높게(vs. 낮게) 지각하는 것은 높은(vs. 낮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높은(vs. 낮은) 집단주의 성향에 의

해 순차적으로 매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외적 특성에 해당하는 피부색에 관심을 가지고 피부색에 따른 실체성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직업이나 정당 등(Callahan & Ledgerwood, 2016; Lickel et al., 2000; Newheiser et al., 2012)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집단 속의 개인들의 특징이 실체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목소리(Pisanski & Rendall, 2011)나 체격(Duguid & Goncalo, 2012) 등과 같이 개인의 특징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의 실체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실험 조작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지각된 피부색에 따라 대상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하창현, 2019; Bayton & Muldrow, 1968; Franklin, 1959; Maddox & Gray, 2002)의 결과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타인의 피부색을 통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지각하는 편향이 있음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피부색이 검을수록(vs. 흰수록)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vs.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이 재확인된 결과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피부색이 어두운(vs. 밝은) 대상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vs. 높게) 지각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험 조작에 따른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지각된 피부색 밝기가 대상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조작한 대상의 피부색이 개인들이 지각하기에 충분히 검거나 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마다 어두운 피부와 밝은 피부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으로는 타인의 피부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두운 또는 밝은 경우에만 그들에 대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인들이 지각하는 피부색 밝기가 타인의 인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여러 수준의 피부색 자극들을 제시하여 개인들의 피부색 지각에 따른 편향 발생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게 지각되는 대상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예상과 반대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상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가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있다.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척도에 대한 반응을 위하여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과 그 구성원들을 떠올릴 때, 특권 계층의 집단에 대한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익과 관련하여 하는 행동인 담합 현상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사회적 특권 계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더욱 담합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의사나 약사들이 처방약 판매를 독점하는 등의 불법 담합을 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뉴스토마토, 2019. 11. 28). 따라서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질 것이라 지각하였을 수 있다. 반면,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집단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고 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Roux, Goldsmith, 그리고 Bonezzi(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난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경쟁적 성향을 활성화시키며, 자신의 안녕과 관련된 이기적인 의사결정을 더 내린다고 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타인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고 지각하여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고 지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참가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또는 낮은 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떠올렸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해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여러 문화권에서 또는 인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높은 집단주의 성향이 공통 운명과 비침습성을 예측하지는 못하였지만, 집단 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은 공통의 목표, 친밀성, 집단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과 집단 실체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Gaertner & Schopler, 1998; Lickel et al., 2000)이 부분적으로 반복검증된 것이며,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보다 더 높은 실체성을 가진 것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 집단주의 성향과 공통 운명, 비침습성 사이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일지라도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들의 집단에 가입하거나 나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두운 피부색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보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고, 집단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하여, 최종적으로 집단 실체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행동에 대한 편향된 지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체성이 높게 지각된 집단은 더 극단적이거나(Thakkar, 2001) 위협적으로 지각되며(Callahan & Ledgerwood, 2016), 집단적 책임(Denson et al., 2006; Lickel, Schmader, & Hamilton,

2003)을 더 강하게 부여한다. 이처럼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들의 행동에 대해 편향된 지각을 하여, 집단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심해질 가능성(Newheiser et al., 2012)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으로 모집된 참가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용하여 연구에 참가하였으므로,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사진의 화면 밝기가 통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부색 자극들은 모니터의 밝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어두운 피부색으로 편집된 사진도 모니터의 밝기가 밝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검게 지각될 수 있고, 밝은 피부색으로 편집된 사진 또한 밝기에 따라 덜 밝은 피부색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하여서 참가자 개인이 사용하는 화면의 밝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화면 밝기가 동일한 모니터를 사용하여 각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사진이 물리적으로 같은 밝기를 보이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간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 Allport, 1954)에 따르면, 다른 집단과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들은 집단 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참가자들이 어두운 또는 밝은 피부색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에 따라 피부색 밝기에 대한 지각과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접촉 경험에 따라 피부색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의 묘사(‘사진 속의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집단을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대상들이 함께 일하는 집단을 생각할 때 그 집단을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주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로 블루칼라(blue-collar)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반면,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화이트칼라(white-collar) 직업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대상들이 겪는 경제적 부족 상황으로 인하여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들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될 수 있으며,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진 대상들은 현재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직업군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집단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익과 관련된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묻는 척도들에 집단주의가 높을 것이라고 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묘사가 특정 직업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직업과 관련이 없는 집단을 사용하여 피부색에 따른 집단 실체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척도(Kim & Cho, 2011)의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문항들만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하위 요인들 중 목표 우선(goal priority)에 해당하는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각 문항은 ‘이익’과 관련하여 집단이 우선인지 개인이 우선인지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이익’과 관련된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였기에,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게 지각되면 그들을 특권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지각하여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주의적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에서 목표 우선에 해당하는 부분만 문항으로 사용하여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여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상들의 집단주의-개인주의적 성향이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에 따라 집단 실체성 지각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집단

에 대한 차별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에 따라 지각된 실체성이 집단 행동에 대한 차별 (예: 잘못을 행한 경우 집단적 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하는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불러일으키는 지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의 탐색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하창현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의사결정의 차이와 인상 특징에 따른 차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상희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음 지각, 집단 간 관계, 도덕적 판단, 빈부 문제, 사회심리학의 정책에의 적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뉴스토마토 (2019. 11. 28) “경기도, 의약품 불법 담합 사슬 의사약사 등 적발”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6438>

김범준, 송관재, 이훈구 (1997). 집단실체성에 따른 집단지각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57-74.

이향수, 박상희 (2017). 집단 실체성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101-126.

하창현 (2019). 피부색이 한국인 대상에 대한 인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Ahuja, K., van der Schaar, M., & Zame, W. R. (2017).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economic outcomes: A theory and some evidence*. Unpublished manuscript. https://www.vanderschaar-lab.com/papers/Ahuja_Individualism.pdf.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Bayton, J. A., & Muldrow, T. W. (1968). Interacting variables in the perception of racial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3(1), 39-44.

Brown, R., & Hewstone, M. (2005).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tact. In M. P. Zanna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7, pp. 255-343). San Diego, CA: Elsevier Academic Press.

Callahan, S. P., & Ledgerwood, A. (2016).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flags and logos: Group identity symbols increase perceived entit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4), 528-550.

Campbell, D. T. (1958). Common fate, similarity, and other indices of the status of aggregates of persons as social entities. *Behavioral Science*, 3(1), 14-25.

Castano, E., Sacchi, S., & Gries, P. H. (2003). The perception of the oth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Evidence for the polarizing effect of entitativity. *Political Psychology*, 24(3), 449-468.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8). Warmth and competence as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perception: The stereotype content model and the BIAS map.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61-149.

- Darley, J. M., & Gross, P. H. (1983). A hypothesis-confirming bias in labeling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20-33.
- Denson, T. F., Lickel, B., Curtis, M., Stenstrom, D. M., & Ames, D. R. (2006). The roles of entitativity and essentiality in judgments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43-61.
- Dixon, T. L., & Maddox, K. B. (2005). Skin tone, crime news, and social reality judgments: Priming the stereotype of the dark and dangerous black criminal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8), 1555-1570.
- Duguid, M. M., & Goncalo, J. A. (2012). Living large: The powerful overestimate their own height. *Psychological Science*, 23(1), 36-40.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 Gaertner, L., & Schopler, J. (1998). Perceived ingroup entitativity and intergroup bias: An interconnection of self and oth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6), 963-980.
- Goldsmith, A. H., Hamilton, D., & Darity Jr, W. (2006). Shades of discrimination: Skin tone and wages.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242-245.
- Grossmann, I., & Varnum, M. E. (2011). Social class, culture, and cogni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1), 81-89.
- Hamilton, D. L., Sherman, S. J., & Lickel, B. (1998). *Perceiving social groups: The importance of the entitativity continuum*.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ofstede, G. (1991). *Empirical models of cultural differences*. In N. Bleichrodt & P. J. D. Drenth (Eds.), *Contemporary issu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4-20). Swets & Zeitlinger Publishers.
- Kim, K., & Cho, B. (2011). Development of an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revisited: A Korean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108(2), 393-401.
- Klonoff, E. A., & Landrine, H. (2000). Is skin color a marker for racial discrimination? Explaining the skin color-hypertension relationship.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3(4), 329-338.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Lakens, D., & Stel, M. (2011). If they move in sync, they must feel in sync: Movement synchrony leads to attributions of rapport and entitativity. *Social Cognition*, 29(1), 1-14.
- Lickel, B., Hamilton, D. L., Wierzchowska, G., Lewis, A., Sherman, S. J., & Uhles, A. N. (2000). Varieties of groups and the perception of group entit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23-246.
- Lickel, B., Hamilton, D. L., Wierzchowska, G., Lewis, A., Sherman, S. J., & Uhles, A. N. (2000). Varieties of groups and the perception of group entit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23-246.
- Lickel, B., Schmader, T., & Hamilton, D. L. (2003). A cas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Who else was to blame for the Columbine High School

- shoot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194-204.
- Lorenzi-Cioldi, F., & Dafflon, A. C. (1998). Norme individuelle et norme collective, I: Représentations du genre dans une société individualiste. *Swiss Journal of Psychology*, 57(2), 124-137.
- Maddox, K. B., & Gray, S. A. (2002).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Black Americans: Reexploring the role of skin ton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2), 250-25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Connell, A. R., Sherman, S. J., & Hamilton, D. L. (1997). Target entitativity: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bout individual and group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750-762.
- Newheiser, A. K., Sawaoka, T., & Dovidio, J. F. (2012). Why do we punish groups? High entitativity promotes moral suspic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4), 931-936.
- Oldmeadow, J., & Fiske, S. T. (2007). System justifying ideologies moderate status=competence stereotypes: roles for belief in a just world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6), 1135-1148.
- Park, J. Y., Oh, J. M., Kim, S. Y., Lee, M. K., Lee, C. R., Kim, B. R., & An, S. K. (2011). *Korea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KOFEE)*. Seoul, Korea: Section of Affect & Neuroscienc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i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eng, Y., Zebrowitz, L. A., & Lee, H. K. (1993). The impact of cultural background and cross-cultural experience on impressions of American and Korean male speak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2), 203-220.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Pisanski, K., & Rendall, D. (2011). The prioritization of voice fundamental frequency or formants in listeners' assessments of speaker size, masculinity, and attractivenes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29(4), 2201-2212.
- Plitt, M., Savjani, R. R., & Eagleman, D. M. (2015). Are corporations people too? The neural correlates of moral judgments about companies and individuals. *Social Neuroscience*, 10(2), 113-125.
- Ransford, H. E. (1970). Skin color, life chances, and anti-white attitudes. *Social Problems*, 18(2), 164-179.
- Richard, F. D., Bond Jr, C. F., & Stokes-Zoota, J. J. (2003). One hundred years of social psychology quantitatively describe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4), 331-363.
- Roux, C., Goldsmith, K., & Bonezzi, A. (2015). On the psychology of scarcity: When reminders of resource scarcity promote selfish (and generous)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4), 615-631.
- Ryckman, R. M., Robbins, M. A., Kaczor, L. M., & Gold, J. A. (1989). Male and female raters' stereotyping of male and female physiq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2), 244-251.
- Sim, M., Kim, S. Y., & Suh, Y. (2022). Sample size requirements for simple and complex mediation model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82(1), 76-106.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703-720.
- Strohinger, N., Gray, K., Chituc, V., Heffner, J., Schein, C., & Heagins, T. B. (2016). The MR2: A multi-racial, mega-resolution database of facial stimuli. *Behavior Research Methods*, 48(3), 1197-1204.
- Thakkar, V. (2001). *The role of entitativity in judgments about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Varnum, M. E. (2013). What are lay theories of social class?. *PLoS ONE*, 8(7), e70589.
- 1 차원고접수 : 2022. 06. 12.
수정원고접수 : 2022. 08. 17.
최종게재결정 : 2022. 10. 09.

The effect of group members' skin tone
on the perception of entitativity:
The serial mediation of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and
collectivism/individualism

Chang Hyun Ha

Sang 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whether a Korean group of darker-skinned members would be perceived as higher in entitativity than a group of lighter-skinned members, and whether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skin tone and entitativity would be serially mediated by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SES) and perceived collectivism/individualism. We pre-registered the hypotheses, procedures, and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s of this study. We also report how we determined our sample size, all data exclusions (if any), all manipulations, and all measures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darker-skinned or the lighter-skinned condition, and rated perceived SES and collectivism/individualism of three targets. Next,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the group image consisting of the three targets and read the description of the group, and answered to questions on perceived entitativity of the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no significant serial mediation effect of the perceived SES and collectivism/individualism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tone and entitativity, nor significant effects on any of the five factors of entitativity (common fate, common goals, closeness, impermeability, groupness). In an exploratory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serial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s' perceiving skin tone lightness of the targets and the five factors of entitativity,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our expectations: The lighter participants perceived the targets' skin tone, the higher was targets' SES and collectivism, and finally, higher collectivism led to higher perceptions of common goals, closeness, and groupness of the group.

Keywords : Skin Tone, Socioeconomic Status, Collectivism-Individualism, Entitativity